

금융위원장 만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승부수!

전북자치도, 개발계획 제출 후 후속 면담…세계 3대 연기금 보유한 국내 유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생태계를 앞세워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도는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여의도동 일대)과 부산(문현동 일원) 두 곳뿐으로,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이 지정될 경우 제3의 금융중심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와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함께한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29일

도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지정 심사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김지사는 면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 지역공약에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세 차례나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KB금융과 신한금융 등 민간 금

융그룹의 전북 투자 움직임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 전문가·금융기관 간담회,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완료했다”며 적극적인 심사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도의 설명을 청취한 뒤, 향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호 기자

김제시, 지역 콘텐츠 활용한 작은축제 육성 시작

19일까지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 추진

김제시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대규모 행사 위주의 축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축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콘텐츠와 주민 참여도가 높은 축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화합, 전통계승,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축제를 주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공모를 통해 3개소 작은 축제를 선정하고, 축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오는 19일 18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홍보축제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발굴된 작은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사후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작은축제 지원사업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한 것”이라며 “각 지역의 독특한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축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한영산업 등 7개 참여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40~69세 미취업 신중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중년 고용 촉진 사업으로, 지난 2025년에는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1명의 신중년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중년층 재취업에 기여했다.

김서주 기자

신안땅콩 브랜드화 위한 첨단가공운영체계 구축

신안군은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최근 준공된 땅콩가공시설을 방문하여, 가공시설 운영현황과 유통체계를 점검했다.

신안 자은도 땅콩은 청정한 바다, 비옥한 사질토에서 자라 알이 굵고 담백함과 고소함이 뛰어나 땅콩애호가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지역특산품으로, 2025년도 기준 20농가에서 29ha를 재배하여 연간 9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신안군은 프리미엄 땅콩 브랜드가치를 활용하여 지역 고소득 창출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안군 자은도에 2024년 5월에 땅콩가공시설(705㎡)을 착공, 2025

년 12월 준공했다.

땅콩가공 전문업체 ㈜크레이지피넛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위탁사업자인 ㈜크레이지피넛은 볶음땅콩, 땅콩버터, 땅콩유 등 주력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온라인 유통몰인 네이버, 쿠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신안땅콩을 주원료로 연간 50~60톤 규모의 가공제품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생 구조를 구축하여 연 매출 30억 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땅콩가공시설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위탁운영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땅콩가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본격 추진한다.

이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관내 13개 읍·면 농업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8일간 순회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덕현 기자

어민 중심의 해상풍력 공공주도 모델 완성!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어민이 직접 결정하는 해상풍력’이라는 혁신적인 상생 모델을 완성하며 정부의 예비지구 지정을 향한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4월 군청 우후홀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이홍재 고흥군수협장, 어민 대표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수협 권역 해상풍력 공존위원회 출범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나로도수협 권역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고흥군 전 해역을 아우르는 강력한 민관 협력 체계가 마침내 완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공존위원회는 과거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바다의 주인인 어민이 개발 여부와 방식을 직접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환경 및 자원 조사 참여 ▲주요 안전 심의 ▲상생 방안 발굴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 규정 의결과 함께 공동위원장과 어민 대표위원 55명을 구성해 조직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해상풍력이 어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투명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고흥군은 이번 공존위원회 구성이 단순한 협의체 구성을 넘어,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법’에 따른 ‘국내 1호 예비지구’ 지정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미 지난해 2건의 정부연구 사업(총 75억 원 규모)에 선정돼 2GW 규모의 계획입지를 개발 중이며, 어민과의 대타협을 통해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다.

공영민 군수는 인사말에서 “어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상풍력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군이 책임지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어민과 수협이 추진 방식부터 상생 방안까지 직접 결정하는 전국 최고의 공공주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홍재 고흥군수협장은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어민이 주인이 되어 질서 있는 개발을 이끄는 데 이번 출범의 큰 의미가 있다”며 “어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상생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덕현 기자

곤충산업, 농가소득 해법 현장에서 찾다

남원시, 생생한 현장 의견 수렴 통해 지속가능한 곤충산업 육성 방안 모색



남원시는 지역 곤충사육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곤충사육 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원시 관계자를 비롯해 남원시의회 이기열 의원, 김정현 의원, 관내 곤충사육 농가 등 16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과 판로 확보, 기술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곤충사육 농가들은 ▲곤충사육 안정화를 위한 표준화 기술 지원 확대 ▲곤충 가공·유통 판로 개척 ▲곤충산업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농가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시는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곤충산업 육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식용 곤충을 활용한 메디푸드, 케어푸드, 소재 원료 등 활용 분야를 확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곤충산업은 미래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곤충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원시의회 의원들 또한 지역 곤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곤충사육 농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곤충산업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

신승민 기자

지역일자리 아우르는 통합고용플랫폼 가동

부안군, 농가 일자리 지원 및 고용 미스매치 해소 기대



점을 둔다. 내국인을 고용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는 종식비와 간식비, 도·농축진수당을 지원하고, 농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농작업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일자

리 서비스를 운영해 상용직 근로자 384명과 일용직 근로자 4,600명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연곤 센터장은 “거버넌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임 기자

광주시 “혜택 두둑한 지역서점 인증 받으세요”

광주광역시시는 지역서점의 자생력을 높이고 책 읽는 도시 광주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지역서점 인증제’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받는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시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요건은 ▲광주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거나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 등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로 방문·우편(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인증제는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서점뿐만 아니라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서점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서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때 우선 계약 대상이 되며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서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광

주시는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지역서점들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안전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빗고을대로 등 14개 노선 총 91.74km 구간을 대상으로 사전 정비한다.

손권일 기자